

# 目次

(一)	統一의 소리 放送의 目的	3
(二)	同目的과 關聯된 諸問題	3
(三)	政府의 當否를 統一-安保政策	11
(四)	政府의 統一-安保政策의 變數要因의 考慮	13
(五)	統一의 소리 放送의 段階的 性格	15
(六)	統一의 소리 放送의 實施原則	19
(七)	統一의 소리 放送의 實施機構의 問題點	21
(八)	統一의 소리 放送 時間	23
(九)	統一의 소리 放送帶 問題	24
(十)	統一의 소리 放送의 第一段階編成方針	26
(十一)	“ “ 第二 “	31
(十二)	“ “ 第三 “	33
(十三)	統一의 소리 放送과 모니터制	35
(十四)	統一의 소리 放送의 設置에 따른 豫算	36



“統一의 소리, 放送 푸로 新設에 따른

諸問題 研究

3170

目 的

美, 中共關係改善, 日소 接近의 試圖와 日本의 中共 對峙.  
 亞細亞友邦國의 緊張緩和動向등, 急激하는 東亞細亞情勢의 變化  
 에 수반하여 國民의 統韓輿論을 指導하며, 政府의 安保統一政  
 策에 호응하는 健全한 對象을 擴大하고, 政府의 統一安保政  
 策에 회의적이거나 及처하는 者를 啓導하며 統韓方策과 政策에  
 대하여 國民總和를 期하는데 있다.

關 聯 된 問 題

- ① 韓半島에 利害關係를 갖이는 強大國들은 韓半島의 分斷의 現  
 狀固定化의 原則下에 對話를 통한 「緊張緩和」의 方向을 強化  
 하고 있다.
- ② 美 中共의 共同聲明에서 “美國은 韓國과의 現存하는 緊密한  
 紐帶를 유지하고 韓半島에서 긴장완화를 追求하고 意思疎通을  
 增進시키려는 韓國의 努力을 支持할 것이라고 하였고 中共은,  
 북괴가 1971년 4월 12일에 提示한 韓國의 平和統一을 위

한 8項方案과 「언 커프」 解体를 要求하는 立場을 確固히 支持한다」고 하며 彼此 相反된 立場을 表明하고 있으나 美中共이 韓半島에 있어서 6.25 와 같은 軍事對決政策을 止揚하는 政策을 追求할 可能性이 크다.

③ 美中共 頂上會談, 美 中 頂上會談의 共同聲明의 內容은 결국 韓半島에서 南北韓間의 緊張緩和를 통한 現狀凍結을 考慮하고 있다.

### 參考事項

1) 美中共의 共同聲明의 記章節次의 性格 및 方向을 1952년 2月 27日 上海에서 朴正秉 將 官의 特別補佐官의 聲明에 의한다면 美 中共이 現狀凍結을 爲하여 武力不行使의 原則에 合意하였다는 ことを 특히 強調했음

2) 美 中 頂上會談 共同聲明의 第二項에서 “雙方은 그들의 關係를 惡化시킬 素地가 있는 情勢의 發展을 막는데 努力한다.

따라서 兩國은 軍事的 對決을 戒하고 核戰爭의 危險을 막기 爲하여 最善을 다할 것이며..... 兩國은 언제나 相互關係에 있어서 自製를 보일 것이며 協濟할 意의를 갖추어 平和的인 方法.

으로 意見差異를 解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ㄷ) 1972년 8월 周恩來가 「레스톤」과의 會談에서 韓國問題를 解決하기 위하여 "韓國에서의 兩쪽의 和解를 實現시키고 韓國의 平和的 統一方向으로 나갈 方途를 마련해야 한다"고 하고 또 休戰協定이 있을 뿐 아직 平和條約이 없다는 表現에서 韓國所題의 解決方法으로 南北韓의 現狀維持를 보다 安定化시키는데 있다고 力을 둔 것 같음,

ㄹ) 1972년 7월 3일 當時의 停戰委 U.N 條例 首席代表 로저 스少將이 장차 韓國人으로서 停戰委員會 首席代表를 交替해야 한다고 言明하였는데 여기에서도 英國도 諒解로 南北韓의 意見疎通을 통한 戰爭終結措置의 必要性을 指摘한 것이라 할 수 있음.

ㅁ) 브레즈 네프 北僞의 許談과 1972년 1월에 提議하였다고 전해지는 南北韓의 戰爭終結方案에 關한 提議를 支持하였다고 報導됨

(東亞日報 1972년 2월 29일)

1972년 1월 11일 金日成은

① 「南北韓 平和協定締結」

② 「相互不攻費宣言」 또는 「武力不行使協定締結」

③ 南韓으로 부터의 美軍撤收과 南北韓의 軍隊縮少.

④ 民主共和憲을 包含한 全政府政治會議의 開催, 南北韓의 自由往來」을 提議하였음.

1971年7月19日 中央의 周恩來의 美國人學者들과의 座談에서 " 韓國에서 休戰協定이 체결된 以來 18年間이나 戰爭終結措置가 없다고 強調했음,

B) 1972年2月8日 美國의 로저스 國防長官의 記者会見에서

"板门店以外의 通路에서 북과가 南韓에서와 美軍이 駐屯하고있다고 하더라도 美韓과의 關係를 설정하는 意思가 있다는 示唆가 있다"고 言明하였는데 數日以後 美國은 韓國을 제쳐 놓고 어떤 關係를 설정하기 위하여 북과와 接觸할 意思가 없다는 것을 言明하였다.

A) 1972年5月6日 「뉴욕 타임스」의 헤리스, 솔저베리 編輯副

局長 阿栗原支店長인 「근. 리」씨가 美國記者로서 最初로 平壤

訪問이 實現되었는데 連이날 북과를 訪問한 「와싱턴 포스트」紙의

「셀리프. 해리스」記者는 5月5日 工의 第一信記事에서 1972年の

북괴는 外部世界의 變化에 따라 過去 衝突的인 方向에서 轉換한 戰術轉換을 이르고 있다」고 指摘하였음.

④ 美中共關係改善과 아울러 美소의 平和共存原則의 再確認下에 의 戰略武器의 制限協定 및 經濟關係의 擴大에 對한 合意등은 日本의 目로 外交努力을 促進하여 朝鮮과의 시베리아 共同開發 其他 平和條約의 締結交渉의 進展, 나아가서 中共과의 國交正常化를 위한 關係設定을 積極推進하고, 북괴와는 經濟分離原則에 立脚한 接觸을 擴大할 것임

⑤ 1972年 6月 3日 日本外相 福田氏는 東京外信記者 클럽에 서 「日本은 北韓과 스포스 및 文化面의 交流를 促進하겠다」고 말하고 그러나 「經濟交流은 南北韓의 움직임을 主視하면 서 慎重하게 다루겠다고 덧 붙였다.

⑥ 이러한 韓半島의 利害當事國의 情勢變化에 따라 북괴는 기왕의 武力에의 南韓의 赤化統一이라는 衝突的인 強硬戰線에서 國際社會에서 오는 孤立化를 防止하기 爲하여 「表明된 政策」으로 平和統一論에 立脚한 平和政勢를 強化할 것임

⑦ 現在 나타내고 있는 強大國間의 力學關係의 推勢에서 보면

強大國들은 韓半島에 있어서 戰爭狀態의 經結과 現狀凍結의 一形態로서 世界의 모든 分斷國들의 一括 同時 U.N加入을 提起할 可能性이 增大됨으로 今年度 第27次 U.N總會부터 이러한 動向이 점차 表面化될 展望이 짙으므로 U.N에서 북괴가 韓國問題 討議에 大韓民國과 同席할 可能性이 크다.

### 參考事項

第27次 總會에서는 韓國問題不上程案이 可決되지 않는 그以上 第26次 總會의 決裁에 따라 韓國問題에 관한 우리側の 언커트 年次 報告書形式의 總韓決裁案과 共產側の 所謂「外單撤收案」과 언커트 解体案은 自動上程될 것이며 이때 手續節次問題로서 代表招請問題가 나올것이다.

再昨年 第27次 總會에서는 共產側の 「南北韓同時招請案이 54대 40으로 否決되었으나 中共의加入、不斷國의 우선 一括加入問題가 抬頭됨에 따라 그 展望이 樂觀不許이다.

⑧ 美大統領의 北京과 모스크바 訪問에서 나타난 國際關係의 새로운 活動性으로 인하여 北傀는 美國의 새로운 政策에 適應하여 이를 活用하려는 傾向이 있다.



( 1972 年 6 月 2 日 UPL 통신의 Newyork times 社説引用 )

参考事項

美國은 世界를 包하여 緊張의 減少를 追求한다는 一般政策과 아울러 " 모든 國家와의 關係를 改善追求하기를 願한다. " 는 3 月 7 日 字 로저스 國防長官의 發言과 國務性代弁人의 " 이문제에 對하여 韓國側과 慎重히 相談하여 北의 眞意와 무엇인가를 打診하고자 한다. " 고 했음

- ② 強大國들間의 合意에 의하여 韓國과 北의에 對하여 共히 軍備改善에 있어서 多少 制動을 걸고 強大國들도 韓半島를 潜在的인 公式 對決場을 만들것을 謀하는 傾向이 많아졌으므로 韓國과 北의는 此 強大國 依存度를 줄이는 한편 独自の 으로 存続 成長하는 手段과 方法을 兩爲해야 된다.

参考事項

워싱턴 A.K News 1972 年 6 月 1 日 字에 의한다면 北의는 첫째 軍檢에 있어서 소련. 中央의 積極的인 軍事財政支援에 기 대할 수 없게 되었으며 둘째 韓國도 英國의 贈支軍事支援을 얻기가 점차 어려워졌으며 ( 美國의 76 年度 會計年度 까지는

한국에 대한 贈支軍毒交換이 終了될 것이라는 假定下에 第三次  
經濟關係會議이 樹立되었으나 임이 會議上 豫상된 軍換이 未達  
될뿐 아니라 軍換에 대한 通貨積貯率을 引上論이 提擧되고 있음  
셋째 美소 兩國은 各々韓國과 북괴의 軍備改善에 있어 多少  
制動을 걸고 있다.

## 政府의 當面한 統一-安保政策의 基調

- ① 統一-가 교에 있어서는 70年代가 民主的 統一-基盤의 造成을 위한 重大한 時間임을 認識하고 「엔코」의 存續과 「유엔」의 統一-에 대한 責任을 平和統一-을 위한 國際環境을 유리하게 助成한다.
- ② 이를 위하여 우리에 敵行爲를 하지 않는 나라들과 多邊的인 外交活動을 擴大 展廻한다는 原則에 따라 이미 通商, 文化技術 등 各分野에서 우리와 제휴하고 있는 中立國에 대하여서도 보다 積極的인 外交活動을 展廻하고, 東歐圈에 대하여서도 非政治的인 問題부터 舞台를 開拓할 것을 試圖한다.
- ③ 유엔 外交에 있어서는 우리 基本路線을 堅持해나가면서 美中 共關係改善, 美소의 새로운 協力體制의 強化 등으로 豫상되는 國際情勢의 流動性에 대하여 「유엔」에 있어서는 韓國問題上程과 南北韓의 同時 招請問題 등에 있어서는 伸縮性있게 對處해나간다.
- ④ 南北韓問題에 있어서는 우선 人道的 側面에서 부터 작실한 努力을 추구 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努力은 戰爭이나 武力

게 의한 北僞의 赤化의 赤化統一企圖를 봉쇄하고 國土統一을 위한 國際的 基盤을 造成하는 筈이다.

⑤ 統一問題에 있어서 平和的接近方法에 임각한 政策을 展開하는 筈便, 國內安保態勢의 強化에 노력해야 한다. 특히 國內安保態勢의 強化에 있어서 軍事的으로 國軍 現兵力水準 유지의 裝備現代化計劃의 推進 民防體制에 있어서는 徵備軍動員體制의 유지와 改善 政治的으로는 國民總和體制를 期한다.

⑥ 1972年 2月 12日 政府는 金溶植 外務部長官을 통하여 金日成의 平和協商提議이나 北僞外相 명의로 제안된 소위 「8項 平和統一方案」에 대하여 「平和統一達成을 위한 4項前提條件을 提示하고 그 具體的 保障을 北僞에 要求한다.

### 4項 前提條件

① 休戰協定締結 당시의 精神과 目的에 따라 非武裝地帶의 健全한 非武裝化와 平和的利用에 관한 「유엔」 軍側 提議를 수락해야 한다

② 地上 또 海上이나 어떤 經路를 통한 北僞의 武裝間接의 南進도 이를 즉각 中止해야 한다.

③ 현재까지 強制抑留되고 있는 拉北民間航空棧의 승객 승무원 및 棧體를 지체없이 손환하고 앞으로는 民間航空棧의 安全을 위협하는 安행이 없어야 한다.

④ 北傀가 부르짖고 있는 이른바 「全國土要塞化」 「全人民武裝化」 「全軍의 幹部化」 등으로 표시된 武力에 의한 赤化統一 野慾을 극각 포기해야 한다.

北傀가 平和統一에 성의를 갖는다면 이상 4개 先行條件을 수락, 行動으로 實証하라」 促求하는 한편 「人道的인 赤十字會 該이 성공하면 非政治的인 문제와 다음 단계로 政治的인 문제에 대하여 許諾할 수 있을 것이다」고 政府의 方針을 천명하였다.

### 政府의 統一-安保政策의 變數要因의 考慮

- ① 北傀의 中共訪府 및 美公使上舍談의 結果에 따른 影響에 대하여 韓半島問題에 대한 強大國의 緊張緩和策의 政策的 展開 (例 1. 友邦 즉 美國 및 日本 등國 才인總會의 南北韓同時 招請案의 支持, 2. 越南戰의 終結과 派越國軍復員문제,

3. 南北韓戰爭終結條約의 提議 4. 友邦의 南北韓軍縮案의 提議 5. 友邦과 北傀와의 關係設定을 위한 政策方案의 講究 및 表明、 6. 戰爭要因除去를 위한 韓半島中立論의 抬頭 7. 友邦을 包含한 東南亞國家間의 相互不可侵宣言論의 抬頭 등 >의 可能性을 考慮에 넣지 않을 수 없다.

② 이러한 背景 아래 ( 南北韓 의 ) 意見 疎通의 擴大와 關係 正常化의 努力을 支持하는 美國의 韓半島政策과 이와 相反되는 政策을 大韓民國이 계속 堅持하는 경우 友邦國이 北傀의 對美接近策에 따라 北傀와의 關係設定을 위한 積極的 外交的 措置를 自後 23 年內 講究할 可能性이 있다.

③ Post SATO 의 日本의 對外政策은 傳統的인 對美 結束關係를 유지하는 태두리에서 「 獨自外交 」 路線을 拳論할 것이고 특히 韓半島問題에 있어서는 中공과 소聯의 利害關係를 考慮하여 方便에 있어서는 두개의 韓國政策을 現實化하고 한편에 있어서는 南北韓의 戰爭終 要因의 除去를 위한 戰爭終結政策을 支持할 것이다.

④ 南北韓의 赤十字會談이 人道的인 次元에서 政治的 次元으로

進展됨에 따라서 “韓半島에 있어서 戰爭勃發危險性의 增大”과  
 는 前提下의 「현재 政府의 統一-安保政策」이 國民感情과 北傀  
 의 今間의 平和政務 즉 對美關係改善의 움직임과 말미추어 中  
 央의 韓半島의 戰爭狀態의 終結을 위한 政治會談의 提議可能性  
 이 排除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유엔」 내에서 「유엔」 밖에서 韓半島의 平和何  
 題를 拳論할때 그들의 意見이 어느 정도 反映된 戰爭終結條約  
 으로 發展할 수 있는 政治會談을 提議할 가능성이 많다.

### “統一의 소리의 放送의 段階的 性格

- ① “統一의 소리” 放送의 性格은 政府의 統一-安保政策의 基調에  
 따라 우선 段階的으로 規定해야 한다. 즉 현재 韓半島의 利  
 害關係가 있는 強大國間의 急激한 緊張緩和의 주제가 韓半島內  
 에 戰爭危險을 高潮시킨다는 “政府의 現行의 統一-安保政策의  
 基調에서 統一의 소리 放送과 以上 지적한 우리의 統一-安保  
 變數要因의 考慮에 의한 韓半島내의 戰爭要因의 減少과 南北間  
 의 正帶的 關係設定을 前提한 우리의 統一-安保政策의 基調에서

實施하는 "統一의 소리 放送"의 性格은 근본적으로 다를 것이다.

② 따라서 "統一의 소리" 放送의 內容은 순수한 放送技術이나  
푸로 編成上의 문제에 의하여 그 效果가 測定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政府의 統一-安保政策의 基調가 對外的으로 國際輿  
論에 對內的으로 統一에 대한 國民感情이나 統一에 대한 여  
망이나 認識에 어느 정도 妥當性을 갖는지나 라는 問題와  
直結된다. 國際的 미디어 通路로 流出되는 情勢나 國內의  
統韓과 관련되는 事件이 韓半島에 있어서 戰爭危險性의 減小  
또는 除去라는 方向으로 움직이고 있는데도不拘하고 北德의  
南侵可能性의 增大라는 前提下의 統一-安保政策의 基調下의 「統一  
의 소리」 放送의 效果는 制約을 받지 않을 수 없다.

③ 따라서 「統一의 소리」 放送의 時期的 段階를 3個段階로  
設定하여 「統一의 소리」 放送의 內容을 政府의 統一-安保政策  
의 基調에 反映시켜야 할 것이다.

즉, "統一의 소리 放送의 第一-段階를 위선 韓半島에 대하여  
利害關係를 갖고 있는 強大隣國의 政策의 再調整에 따른 韓



半島의 戰爭危險性이 高潮되고 있는 時期나, 또는 政府의 非常 事態宣言과 같이 北傀의 武力挑発의 可能性이 常存하고 있는 時期이며 第二段階은 南北韓의 現存의 敵對關係에 큰 變化는 없다 하더라도 人道的인 문제를 中心한 南北韓赤十字會談의 本會談이 開催되는 時期에는 「統一의 소리 放送」 內容은 불가불 「北傀에 의한 戰爭危險의 의한 增大」라는 基調에서 「對話를 통한 南北韓關係의 模索」이라는 前提에 立脚한 統一安保政策의 基調와 關係를 맺게 해야 할 것이다.

第三段階에 있어서는 「유엔」에 있어서 韓國問題討議에 즈음하여 南北韓同時招請問題 등이 可決됨으로서 大韓民國의 韓半島內의 唯一의 合法性이 事實상 變遷된 事態下의 「統一의 소리」 放送 內容은 「유엔」을 통한 統韓에 대한 相當數의 國民大衆의 固定觀念 (스테리오, 라디오의 反應)을 啓導하여 유엔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大韓民國의 主導下의 統一이라는 方向으로 輿論을 善導하는데 重함을 두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第四段階은 南北韓赤十字會談의 本會議의 開催를 통한 人道的 問題의 漸進的解決 (南北韓代表의 會談을 위한 相互訪問과 淮

散家族의 居住合意 등)과 併存되어 休戰線의 安定化를 위한 當事國間의 暫定協定(modus vivende)을 協議할 수 있는 時期에 가서는 「統一소리」放送의 內容도 자연 戰爭危險에 대한 可能性보다도 韓半島內의 戰爭要因의 除去를 위한 積極的인 南北韓의 緊張緩和策에 바탕을 둔 統一安保政策의 基調위에 서야 할 것이다.

第五段階는 第四段階의 統一安保政策의 進展과 더불어 軍事分割線을 中心한 非武裝地帶에 대한 當事國間의 漸定協定이 成立되고 南北韓의 敵對關係가 事實상의 國家關係로 轉換될 때는 統一의 소리 放送內容은 "分斷된 狀態기운데 單一共同體"라는 原則下에서 南北關係의 正常化에 立脚한 統一安保政策의 基調를 바탕으로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統一의 소리 放送의 內容과 그 效果의 測定은 우리 政府의 統一安保政策의 基調의 段階的인 性格과의 關係下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비록 現下의 內外情勢下의 「統一의 소리」放送의 內容은 強大國의 아세아의 緊張緩和政策에 의한 힘의 眞空狀態(軍事介入의 限定과 自制)下의 韓半島의 戰爭危險危

險의 增大 自力安保強化 등을 基調로 한 政府의 統一-安保政策  
의 大衆的 說得에 重點이 주어러야 할 것이나 그러나 同時에  
統一의 소리 放送의 方向은 現在의 政府의 統一-安保政策의 變數  
要因을 考慮하여 長期的 眼目에서 放送內容의 時期的 段階을 미리  
對備해야 될 것임

## 統一의 소리 放送의 實施原則

1. 統一의 소리 放送은 皮相的인 觀察이나 希望的인 推測에 의하지 말고 客視的으로 調查蒐集, 分析評價된 情報 및 輿論에 따르는 科學的根據에 바탕을 두고 統一安保政策이라는 것이 時事的 課題와 밀접히 연관되므로 統一의 소리 放送의 正確性 迅速性 및 適期를 期한다.
2. 統一의 소리 放送은 그 效果를 위하여 푸르內容에 따라 視聽覺媒介體의 種類를 区分하여 實施하되 視聽覺媒介體의 種類의 選擇 (라디오를 통하여 할 것인가 TV를 통하여 할 것인가? 또는 KBS Net work를 통하여 할 것인가 民政의 푸르를 얻을 것인가 하는 문제 등)은 放送對象이나 放送카바地域에 따라서 決定한다.
3. 統一의 소리 放送에 있어서 對象의 正確하고도 適切한 選擇은 그 效果를 精力과 經費의 浪費 없이 고도로 높이기 위하여 그 對象을 具體적으로 選擇하고 重兵的으로 作用한다.
4. 統一의 소리 放送은 政府의 段階的인 統一安保政策을 민백 침하기 위하여 올바른 輿論의 善導와 政策支持層의 擴大를

期하는데 力을 둔 따라서 第一段階의 "統一의 소리放送"의 對象은 基本的으로 南韓內의 視聽者層에 主로 局限하되 漸次的으로 南北韓의 關係의 發展에 따라서 北韓同胞도 그 對象에 包含시킨다.

5. 統一의 소리 放送의 放送內容은 政府의 統一安保政策의 基調와 밀접한 關係性이 있으므로 그 效果를 위하여 關係된 部處 國防部, 外務 및 中央情報部 등과 긴밀한 協助가 있어야 될 것이고 아울러 이러한 關係 部處가 統一安保政策과 관련되는 所管部處의 政策을 弘報하기 위해서도 統一의 소리 放送을 積極活用하고 동시에 參與하는 방향으로 發展해야 한다.

### "統一의 소리 放送"의 實施機構의 문제點

① "統一의 소리 放送"의 實施를 위하여 豫算 人員 그 放送의 效果등의 制約으로 現下의 實情에 비추어 別의 放送局을 設置할 必要를 없으나 既設立된 放送局의 放送帶中 放送時間을 國營放送局의 境遇에는 虧損을 받던시 民放인 경우에는 放送時間을 購入하는 方式을 採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現在 政府의 緊縮財政策에 副應하기 위하여 第一次으로 國營放送에서 統一의 소리放送時間을 割愛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漸次的으로 必要에 따라서 民間放送時間을 購入하는 方法을 考慮해야 될 것이다.

② 統一의 소리放送製作에 대한 技術的인 責任은 國營放送局에서 맡되 統一의 소리放送의 指針의 作成 媒体의 選拔 放送對象의 決定 규모의 調整등 統一의 소리의 放送의 政策的인 性格은 統一院主官下에 둔다 할 것이다.

③ 따라서 統一의 소리放送의 內容을 協議하기 위하여 國土統一院에 統一의 소리放送協議會를 設置한다. 同協議會의 委員은 統一院에서 2人 放送局關係人士 2人 外務部, 國防部, 中央情報部의 實務專門家를 各 1人 其他 弘報關係 安保統一關係 專門家 3人으로 計 9人으로 하고 同協議會委員長은 統一院側에서 幹事委員 2人은 統一院 弘報室 實務者와 放送局 統一의 소리 製作 實務者로서 한다.

## 統一의 소리 放送時間

① 統一의 소리 放送에 있어서 放送時間은 原則적으로 週5分內至 / 時間內外로 하되 統一-安保政策과 關聯이 된 國內外情勢의 急激한 發展에 즈음하여서는 必要에 따라 隨時 國立放送局의 뉴스 解說時間을 嗣後를 받아 그 內容으로 代替한다.

理由 첫째 統一의 소리 放送素材가 現在로서 많지 않고  
앞으로 困難을 해야 한다.

둘째 放送時間을 많이 받으면 統一-院側의 行政的負擔이 될 뿐만 아니라 國立放送의 既存 放送帶를 侵奪하여 마찰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셋째 統一의 소리 放送의 製作에 必要한 過多한 經費가 所要된다.

## 統一의 소리 放送帶問題

「統一의 소리」 放送의 放送帶 문제에 있어서 "라디오"를 통하여 統一-安保政策과 관련 있는 特種事件의 解説 이와 관련된 國內에서 발생한 重要時事問題에 대한 對談 또는 北韓内幕에 대한 報告 故愼者의 體驗談을 午後 10時 ~ 11時前後 配定 해야 될 것이고 必要에 따라서는 ( 放送時間이 20分内外의 두로인 경우 ) 아침 7時 ~ 8時 사이에 再放送되는 것도 바람직 함. T.V.를 통하여 「統一의 소리」 放送를 放映할 때의 放映帶도 原則적으로 午後 10時 以後가 되어야 할 것이나 放映素材가 共產國 또는 北韓内幕에 관련 "다큐멘터리" 필름을 中心한 解説이나 또는 "드라마"나 "코믹하 劇化物"인 경우 에는 午後 9時 ~ 10時에 放映帶를 配定받는 것이 効果 的인 것이다.

즉 "라디오" 건 "텔레비"를 통하여간에 統一-安保政策에 對한 "解説" 對談 「두로」가 되는 경우는 실사 放送 또는 放映의 "골든 아워"가 午後 8時부터 10時内이라 할지라도 현재 의 國民大衆의 放送 또 放映聽取 趣向으로 보아 오히려



午後 10 時以後가 現實的으로 妥當할 것이다.

理由는 첫째 一般大衆의 聽取 또 視聽性向이 골더이우워, 에  
있어서는 간단한 뉴스以外 放送劇 등 劇化物과 音樂 其他  
娯樂物에 集中하는 傾向이 強하다.

둘째 골더이우워, 에 解說物 또는 對談 등을 配定한다 하도  
라도 그 時間의 全放送帶가 딱딱한 "푸로" 이면 모르되  
그렇지 않고 其他 여러 放送帶가 가볍고 興味 爲主의 "푸로",  
가 있다면 統-安保政策의 딱딱한 "푸로" 보다 다른 整  
快한 부르에 다이알을 바꾸기 마련이다.

셋째 民營放送에 있어서도 말할 것도 없고 설사 國營放送  
網에 있어서도 그 放送의 目的이 "統-의 소리" 放送에  
만 높은 比重을 둘수 없기 때문에 現實적으로 "골더 이우  
워, 에 統-의 소리 放送을 配定하기에는 힘들 것이다.

넷째 따라서 統-의 소리 放送의 實施를 위하여 放送帶의 配  
定을 放送局의 實情으로 보나 또는 國民大衆의 放送聽取趣向  
으로 보아 無理하게 골더 이우워 에 配定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午後  
10 時~ 11 時에 放送帶의 配定이 現實的일 것이다.

# 統一의 소리 放送의 第一段階 編成方針

## 方針 一.

韓半島에 利害를 갖고 있는 強大國의 緊張緩和무드에도 不拘  
 韓半島에서는 戰爭勃發危險性이 尙存하다는 것을 認識케 하여  
 統一이라는 것은 平和的인 方法에 의거하되 自國의 政治的 經  
 濟的 및 軍事的 實力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納得지킨  
 다.

## 具體的 實踐 方案

첫째 "統一安保政策에 대한 解說, 對談 등을 통하여 北僞의 이  
 큰바 全國土의 要塞化, 全人民의 武裝化, 全軍의 幹部化라는 三  
 大軍事路線에 立脚한 對南 戰略의 性格을 說明하면서 北僞의  
 重備體制를 暴露한다.

둘째 北僞의 金日成의 日本言論人 및 美國記者의 會見을 통하  
 여 平和攻勢와 和解政策을 表明하고 있으나 南北韓의 平和的  
 競爭을 위하하여 政府가 提示한 四個先行條件이 實現되어야 한  
 다는 理由를 統韓問題와 관련된 時事對談에 있어서 國內의 著  
 명한 學者 또는 關係 專門家를 통하여 解說한다.

셋째 南北韓의 平和的 統一에는 무엇보다 社会的 經濟的 單軌的인 次元에서 大韓民國의 實力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西独의 對東方政策經過와 性格을 통하여 解説한다

넷째 國際적으로 權威 있는 新聞의 論說이나 解説記事 가운데 現下 政府의 統一-安保政策에서 假定한 韓半島에 관한 情勢視과 一致한 "특필"에 대하여 國內著名人士를 中心한 "特輯 對談 꾸로"를 만든다.

다섯째 우연 자交到 있어나 南北韓赤十字會談의 進展狀況과 關聯한 時事報道와 解説은 政府의 政策을 正確하게 傳達하고 國民의 誤解를 주리기 위하여 事前에 關係當局과 긴밀히 協助하여 國民輿論을 善導하는 "特輯꾸로"를 만든다.

여섯째 統一에 대한 막연한 幻想이나 지나친 期待를 주리고 특히 統一이라는 것이 하나의 政府에의 強制的인 統合이 아니라 相異한 體制間의 民族共同体라는 意味가운데서 競爭的 共存이라는 觀念으로 감진적으로 現實化 시킨다 예를 든다면 우연에서 南北韓 同時招請問題나 韓赤의 家族찾기 運動, 日本의 對北僑接 近등을 政府의 現實的인 統一-安保政策에 따라 納得시킨다.

일곱째 國民의 要望에 副應하되, 指導性을 갖고 衆知를 導으키  
기하며 社會各分野의 知識이 풍부하고 德望이 높은 人士로 하  
여금 政府의 統一安保政策의 展望에 積極 參與케 하여 統一의  
소리 放送의 權威를 높인다

方針 二.  
北傀 등 敵性國家의 虛偽宣傳을 暴露하여 그들이 主張하는 南北聯  
邦案이라는 것이 現段階에 있어서 非現實性이라는 것을 理論的으  
로 立證하고 國論의 統一을 期하고 自由世界와 共產世界의 生活  
相을 比較하여 自由의 崇高함과 人間의 尊嚴性을 宣揚한다.

### 具體的 方案

첫째 宣依단을 目的으로 하는 北傀의 通信 및 放送을 受信하여  
이를 分析하여 그들의 平和攻勢의 正體를 폭로하는데 逆利用한다  
둘째 倣愾者로 하여금 北傀의 國內寔情 指導路線의 獨裁性 및 軍  
備의 強化를 直接 暴露케하여 大韓民國과 北傀의 國內態勢의 差  
異點을 認識케 한다.

셋째 6.25 事變 당시의 慘狀 竊據拉北事件, 1.24 事態 등을 素  
材로 한 放送 드라마 放送小說 隨筆 등으로 解弛된 及 共意識을 換  
출한다. (北傀 다큐멘터리 映畫의 製作도 可함)

넷째 學術세미나 도 講演會, 國際的인 有力誌에서 北傀의 金日成体制의 独裁性, 效立性을 論破할때 이를 北傀의 平和攻勢에 关联評價하는 푸로를 製作한다.

다섯째 日本 美國, 英國, 佛國 西独等に 있는 유력한 共產黨研究機關과 상호 연락하여 資料를 수집하고 韓國의 統一安保政策을 理論的으로 뒷바침할 수 있고 北傀의 金日成路線에 대한 批判的 研究結果를 統一의 소리 放送에 活用한다.

여섯째 韓國의 民俗的인 記念日을 紹介하는 特輯 푸르나 또는 學界에서 國學에 처한 草期的인 研究成果를 알리는 "푸로"를 製作한다.

### 方針 三.

政府의 統一安保政策과 관련하여 韓國의 力量 增大를 誇示하고 政府의 施策을 迅速 正確하게 報導하고 그러한 施策이 國民生活에 미치는 影響과 結果를 알기 쉽게 解説하며 國民의 自發的인 政府施策에 대한 協調事實을 대대적으로 취급하여 統一의 소리 放送에서 國民의 団合을 선전한다

具體的 實踐方案

첫째 先建設後 統一이라는 原則下에서 政府의 開發計劃 특히 綜合製鐵, 重化學工業建設 五大江開發 高速道路網의 擴大 「새마을 운동」 등의 政府施策의 弘報는 統一의 소리放送에서 뉴스, 뉴스 解説 學術講演 座談會 등의 形式으로 多角的으로 취급하여 이를 活用한다.

둘째 大學敎授 宗敎人 文化人 등을 動員하여 先建設後 統一이라는 統觀의 妥當性을 啓導하는 무크를 製作하고 새마을 운동 등 國土開發事業의 實態와 地方民의 輿論을 統一의 소리放送에 活用한다.

셋째 民間事業으로서 政府施策에 副應하는 事業을 널리 宣傳하여 事業者의 士氣를 昂揚시키고 우리들의 生活周圍에서 發見되는 特別한 美談과 善行을 宣傳하여 統一의 바탕으로서의 韓國의 發展祖에 대한 國民의 自信을 복도와 준다.

## 統一의 소리 放送의 第二段階 編成 方針

統一의 소리 放送의 內容이 「北傀에 의한 戰爭危險의 增大」에서 「對話를 통한 南北韓關係의 摸索」이라는 方向으로 轉換되어 가는 것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韓半島의 安保 특히 韓國의 國內態勢의 強化에 대한 內容뿐 아니라 南北韓間의 共同體의 要因과 異質的 要因을 아울러 放送 素材로 잡아 나간다. 南北韓間의 共通的 要素는 人道的 問題, 民俗的 問題, 風習的 要因, 地緣的 回顧 등의 問題가 될 것이나, 異質的 要因은 解放 4半世紀 동안의 政府體制上의 差異점이 蕪調될 수 있을 것이다.

放送 聽取 對象은 南韓의 國民뿐만 아니라 비로소 北韓의 同胞들 意識한 두로 內容으로 서서히 轉換을 準備해야 할 것이다.

### 編成 指針

첫째 北傀의 對南侵略可能性이 尚存하고 있지만 人道的 問題를 中心하여 南北韓關係를 段階的으로 摸索해 간다는 基調에서 南北韓赤十字會談의 經過에 대하여 正確한 報道와 適當한 解說를 한다.

둘째 南北韓關係의 重要한 新우스나 事件이 전개됨에 따라 南

北韓의 民俗 言語 風習 등의 共通的 要因의 學術的인 問題莫이나  
 研究結果의 アカ데믹한 結果등에 對한 研究評價 「푸르」를 만드는  
 동시에 政府體制의 差異에 對한 「民族」의 單位로서 異質的  
 要素의 形成에 對한 正確한 認識을 할 수 있는 北韓實情 「푸르」  
 를 만든다.

셋째 單- 政府라는 感傷的 統一論에서, 南北韓의 異質的 社會  
 바탕 위에서 南北韓關係를 把握하고 北僞는 政治的인 利己의 統  
 治體(政體)라는 視點에서 南北韓赤十字會談의 進展, 日本의 對北  
 僞의 接近策, 美國의 韓半島의 緊張緩和政策 등과 관련 뉴스와  
 特種 事件 등을 報道解説 또는 對談式의 푸르를 만든다.

네째 「유엔監視下 土着 人口比例에 의한 總選舉」를 통한 單-政  
 府의 形成」이라는 것이 統韓의 效果的方案이라는 固定觀念이나  
 또는 유엔에서 韓國問題討議에 北僞가 同席한다는 것은 韓國의 國  
 際的 威信의 格下라고 생각하는 國民의 「스테로오 타입」을, 及  
 化하는 國際情勢에 適應시킬 수 있도록 "統韓問題와 國際情勢의  
 變化" 라는 特別 "푸르" 를 만든다.

다섯째 北僞의 國內指導路線과 對外政策에 對한 學術的인 分  
 析과 評價를 통하여 南北韓赤十字會談 關係時의 그들의 政策과



既往의 政策을 對比하여 北傀問題(國內情勢 住民의 生活相, 指導層의 性格)을 客觀的으로 理解시키는 特輯 푸로를 만든다.

다섯째 北傀의 平和攻勢와 더불어 大韓民國의 安保 즉 軍備問題에 重大한 變化를 招來하는 北傀의 統韓提議에 대하여서 그것을 外面까지 말하고 그 虛構性을 客觀的으로 分析하여 迅速히 報道하는 "푸로"와 아울러 關係 當局과의 協助下에서 韓國의 統一-安保政策 또는 南北韓의 關係正常化에 대한 先行條件을 提示하고 그것을 國民이 納得할 수 있는 特輯 푸로를 만든다.

## 統一의 소리 放送의 第三段階의 푸로 編成方針

統一의 소리 放送의 第三, 四段階의 푸로 編成方針은 統一의 소리 放送內容을 規制하게 되는 韓國의 統一-安保政策의 基調에 대한 國內外的인 變數要因으로 이를 具體化하기에는 時期尚早이다 그러나 現在의 統一-安保政策이 強大國의 韓半島에 대한 緊張緩和政策에 따른 北傀의 戰爭挑發可能性의 繼續的 增大하는 前提에서 있으나 向後의 韓國統一-安保政策은 오히려 韓半島의

價라는 方式이 있을 것이다 專任 보다는, 統一院의 統一의 소리 放送의 企劃, 製作 担当者로서 兼職 할 수 있다. (但 서울居住者)

## 參考事項

### 統一의 소리 放送의 設置에 따른 豫算

1. 會議費 380,000 원

① 統一의 소리 放送諮問委員會

$$5,000 \text{ 원} \times 52 \text{ 週} = 260,000 \text{ 원}$$

② 特輯放送諮問會議費

$$5,000 \text{ 원} \times 24 \text{ 週} = 120,000 \text{ 원}$$

2. 手當 및 謝禮金 3,560,000 원

① 諮問委員手當

$$\text{月 } 5,000 \times 10 \text{ 人} \times 12 \text{ 月} = 600,000 \text{ 원}$$

② 對談平三 特別謝金

$$20,000 \text{ 원} \times 52 \text{ 回} = 1,040,000 \text{ 원}$$

$$10,000 \text{ 원} \times 6 \text{ 人} \times 12 \text{ 月} = 720,000 \text{ 원}$$

③ 特輯 平呂 謝禮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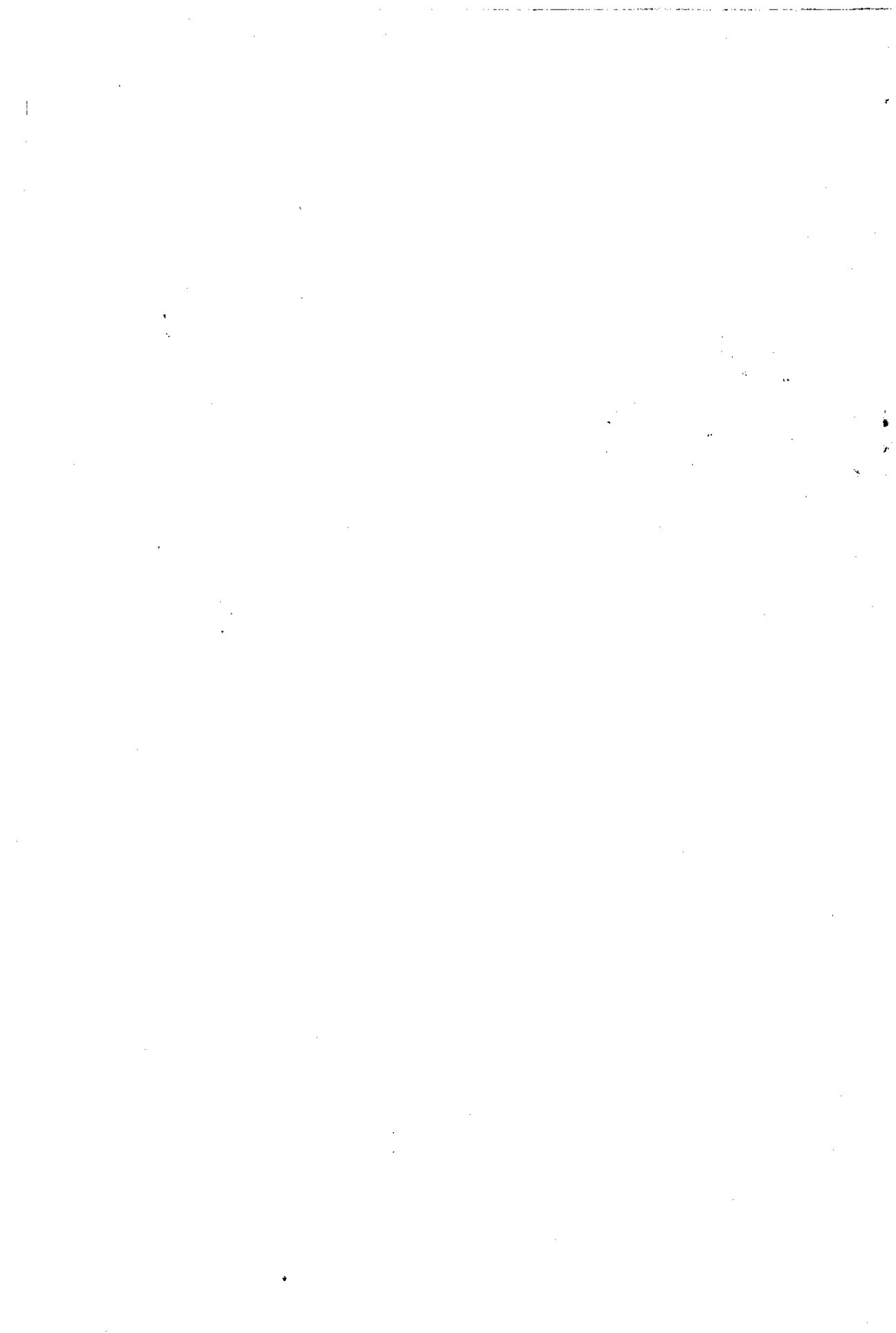
$$50,000 \text{ 元} \times 2 \text{ 回} \times 12 \text{ 月} = 1,200,000 \text{ 元}$$

3. 放送資料調査費 960,000 元

$$20,000 \times 4 \text{ 人} \times 12 \text{ 月} = 960,000 \text{ 元}$$

2

總計 4,900,000 元



첫째 南北韓의 平和的 統一에는 무엇보다 社會的 經濟的 軍事의  
인 次元에서 大韓民國의 實力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西伯의 對東方政策經過의 性格을 통하여 解說한다  
넷째 國際적으로 權威 있는 新聞의 論說이나 解說記者團에 現  
下 政府의 統一安撫政策에서 後進한 韓半島에 관한 情勢觀察  
一致한 "토익"에 대하여 國內著名人士를 中心한 "特輯 對談  
두로"를 만든다.

다섯째 유엔 차트에 있거나 南北韓赤十字會談의 進展狀況과 關係  
한 時事報道와 解說는 政府의 政策을 正確하게 說明하고 國民  
의 誤解를 주리기 위하여 事前에 關係當局과 긴밀히 協助하여  
國民輿論을 尊重하는 "特輯 두로"를 만든다.

여섯째 統一에 대한 막연한 幻想이나 지나친 期待를 주지. 특히  
統一이라는 것이 하나의 政府에의 強制的인 統合이 아니라 相  
異한 體制間의 民族共同體라는 意味에서 競爭的 共存하는 現  
念으로 積極적으로 現實化 시킨다. 예를 든다면 尤로서 南  
北韓 同時招請問題나 釋赤의 民族統一 運動, 日本의 北滿接  
近등을 政府의 現實的인 統一安撫政策에 따라 解釋한다.

첫째 6.25 事變  
차로 韓 放送 드  
출판다 (北僑)

일곱째 國民의 希望에 副應하되, 指導性을 갖고 衆知를 導으키  
위하여 社會各分野의 知識이 풍부하고 德望이 높은 人士로 하  
여금 政府의 統一安保政策의 展望에 積極 參與케 하여 統一의  
소리 放送의 權威를 높인다

方針 二.  
北僞 등 敵性國家의 虛德宣傳을 暴露하여 그들이 主張하는 南北聯  
系이라는 것이 現段階에 있어서 非現實性이라는 것을 理論的으  
로 証明하고 國論의 統一을 期하고 自由世界와 共產世界의 生活  
比較하여 自由의 崇高함과 人間の 尊嚴性을 宣揚한다.

의 方案  
을 目的으로 하는 北僞의 通信 및 放送을 受信하여  
그들의 平和攻勢의 正체를 폭로하는데 逆利用한다  
여금 北僞의 國內事情, 指導路線의 獨裁性 및 軍  
直 露케하여 大韓民國과 北僞의 國內態勢의 差

의 狀 況을 詳述하여 1.24 事態 등을 素  
直 隨筆 등으로 解池된 及 共意識을 換  
映할 수 있을 것이라 함 )

## 統一의 소리 放送의 第二段階 編成 方針

統一의 소리 放送의 內容이 「北傀에 의한 戰爭危險의 增大」에서 「對話를 통한 南北韓關係의 摸索」이라는 方向으로 轉換되어 가는 것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韓半島의 安保 특히 韓國의 國內態勢의 強化에 대한 內容뿐 아니라 南北韓間의 共同體的 要因과 實質的 要因을 아울러 放送 素材로 잡아 나간다. 南北韓間의 共通의 要素는 人道的 問題, 民俗的 問題, 風習的 要因, 地緣的 回顧 등의 問題가 될 것이나, 實質的 要因은 解放 4半世紀 동안의 政府體制上의 差異點이 齟齬될 수 있을 것이다.

放送 聽取 對象은 南韓의 國民뿐만 아니라 비로소 北韓의 同胞들 意識한 두로 內容으로 서서히 轉換을 準備해야 할 것이다.

### 編成 指針

첫째 北傀의 對南侵略可能性이 尚存하고 있지만 人道的 問題를 中心하여 南北韓關係를 段階的으로 摸索해 간다는 基調에서 南北韓赤十字會談의 經過에 대하여 正確한 報道와 適當한 解說를 한다.

둘째 南北韓關係의 重要한 뉴스나 事件이 전개됨에 따라 南

北韓의 民俗 言語 風習 등의 共通的要因의 學術的인 問題莫이나  
 研究結果의 아카데믹한 結果등에 對한 研究評價「푸로」를 만드는  
 동시에 政府体制의 差異에 對한 「民族」의 單位로서 異質的  
 要素의 形成에 對한 正確한 認識을 할 수 있는 北韓民情「푸로」  
 를 만든다.

셋째 單- 政府라는 感傷的 統一論에서, 南北韓의 異質的 社會  
 바탕 위에서 南北韓關係를 把握하고 北僞는 政治的인 別個의 統  
 治體(政體)라는 視點에서 南北韓赤十字會談의 進展, 日本의 對北  
 僞의 接近策, 美國의 韓半島의 緊張緩和政策 등과 관련 뉴스와  
 特種 事件 등을 報道鮮說 또는 對談式의 푸로를 만든다.

네째 「유엔監視下 主着 人口比例에 의한 總選舉」를 통한 單-政  
 府의 形成」이라는 것이 統韓의 效果의 方案이라는 固定視念이나  
 또는 유엔에서 韓國問題討議에 北僞가 同席한다는 것은 韓國의 國  
 際的 威信의 格下라고 생각하는 國民의 「스피로오 카인」을, 變  
 化하는 國際情勢에 適應시킬 수 있도록 "統韓問題와 國際情勢의  
 變化"라는 特別 "푸로"를 만든다.

다섯째 北僞의 國內指導路線이나 對外政策에 對한 學術的인 分  
 析과 評價를 통하여 南北韓赤十字會談 關係時의 그들의 政策과



셋째 南北韓의 平和的 統一에는 무엇보다 社會的 經濟的 軍事的  
인 次元에서 大韓民國의 實力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西独의 對東方政策 經過의 性格을 통하여 解說한다

넷째 國際적으로 權威 있는 新聞의 論說이나 解說記事 가운데 現  
下 政府의 統一-安保政策에서 假定한 韓半島에 관한 情勢 視點  
- 一致한 "투표"에 대하여 國內著名人士를 中心한 "特輯 對談  
투표"를 만든다.

다섯째 유엔 차트에 있어서 南北韓赤十字會談의 進展狀況과 關聯  
한 時事報道와 解說은 政府의 政策을 正確하게 傳達하고 國民  
의 誤解를 주리기 위하여 事前에 關係當局과 긴밀히 協助하여  
國民輿論을 善導하는 "特輯투표"를 만든다.

여섯째 統一에 대한 片面的 幻想이나 지나친 期待를 주리고 특히  
統一이라는 것이 하나의 政府에의 強制的인 統合이 아니라 相  
異한 體制間의 民族共同體라는 यु대기운에서 競爭的 天存이라는 視  
念으로 감진적으로 現實化 시킨다 예를 든다면 유엔에서 南  
北韓 同時招請問題나 韓赤의 家族찾기 運動, 日本의 對北僑接  
近등을 政府의 現實的인 統一-安保政策에 따라 納得시킨다.



일곱째 國民의 要望에 副應하되, 指導性을 갖고 衆知를 導으키  
 위하여 社會各分野의 知識이 풍부하고 聲望이 높은 人士로 하  
 여금 政府의 統一安保政策의 展望에 積極 參與케 하여 統一의  
 소리 放送의 權威를 높인다

方針 二

北僞 등 敵性國家의 虛偽宣傳을 暴露하여 그들이 主張하는 南北聯  
 邦案이라는 것이 現段階에 있어서 非現實性이라는 것을 理論的으  
 로 立證하고 國論의 統一을 期하고 自由世界와 共產世界의 生活  
 相을 比較하여 自由의 崇高함과 人間의 尊嚴性을 宣揚한다.

具體的 方案

- 첫째 宣位만을 目的으로 하는 北僞의 通信 및 放送을 受信하여  
 이를 分析하여 그들의 平和攻勢의 正체를 폭로하는데 逆利用한다
- 둘째 做順者로 하여금 北僞의 國內實情, 指導路線의 獨裁性 및 軍  
 備의 強化를 直接 暴露케하여 大韓民國과 北僞의 國內態勢의 差  
 異점을 認識케 한다.
- 셋째 6.25 專戔 당시의 慘狀 竊據拉北事件, 1.24 事態 등을 素  
 材로 한 放送 드라마 放送小說 隨筆 등으로 解弛된 及 共意識을 換  
 起한다. (北僞 다큐멘터리 映畫의 製作도 可할)



## 統一의 소리 放送의 第二段階 編成方針

統一의 소리 放送의 內容이 「北德에 의한 戰爭危險의 增大」에서 「對話를 통한 南北韓關係의 摸索」이라는 方向으로 轉換되어 가는 것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韓半島의 安保 특히 韓國의 國內態勢의 強化에 대한 內容뿐 아니라 南北韓間의 共同體的 要因과 實質的 要因을 아울러 放送 素材로 잡아 나간다. 南北韓間의 共通的 要素는 人道的 問題, 民俗的 問題, 風習的 要因, 地緣的 回顧 등의 問題가 될 것이나, 實質的 要因은 解放 4半世紀 동안의 政府體制上의 差異점이 緩和될 수 있을 것이다.

放送 聽取 對象은 南韓의 國民뿐만 아니라 비록은 北韓의 同胞를 意識한 두로 內容으로 서서히 轉換을 準備해야 할 것이다.

### 編成 指針

첫째 北德의 對南侵略可能性이 尚存하고 있지만 人道的 問題를 中心하여 南北韓關係를 段階的으로 摸索해 간다는 基調에서 南北韓赤十字會談의 經過에 대하여 正確한 報道와 適當한 解說를 한다.

둘째 南北韓關係의 重要한 뉴스나 事件이 전개됨에 따라 南



北韓의 民俗 言語 風習 등의 共通的 要因의 學術的인 問題 莫이나 研究結果의 多岐 多岐한 結果등에 對한 研究 評價 「푸로」를 만드는 동시에 政府 體制의 差異에 對한 「民族」의 單位로서 異質的 要素의 形成에 對한 正確한 認識을 할 수 있는 北韓 實情 「푸로」를 만든다.

셋째 單一 政府 論은 感傷的 統一論에서, 南北韓의 異質的 社會 바탕 위에서 南北韓 關係를 把握하고 北德은 政治的인 別個의 統治 體(政體)라는 視點에서 南北韓 赤十字會談의 進展, 日本의 對北 德의 接近策, 美國의 韓半島의 緊張緩和政策 등과 관련 뉴스와 特種 事件 등을 報道 解説 또는 對談式의 푸로를 만든다.

네째 「유엔 監視下 土着 人口 比例에 의한 總選舉」를 통한 單一 政府의 形成」이라는 것이 統韓의 效果의 方案이라는 固定 觀念이나 또는 유엔에서 韓國 向題 討議에 北德이 同席한다는 것은 韓國의 國際的 威信의 格下라고 생각하는 國民의 「스페로오 카인」을, 變 化하는 國際情勢에 適應시킬 수 있도록 “統韓問題와 國際情勢의 變化”라는 特別 “푸로”를 만든다.

다섯째 北德의 國內 指導 路線이나 對外 政策에 對한 學術的인 分 析과 評價를 통하여 南北韓 赤十字會談 關係時의 그들의 政策과

